칼 럼



전 영암신북 초등학교 교장

### 무공해 무농약, 무화과를 애용하자

무공해 무농약 과일인 무화과가 주산지인 영암군(군수 전동평)에서 8월 중순부터 출하되고 있다.

과일나무 중에서 농약을 전혀 사 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과일나무는 무화과나무다.

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과일 나무에 피해가 컸으나 무화과나무 는 피해가 적었다.

과일나무 중에서 그해에 심어 그 해에 열매가 열어 수확하는 과일나 무가 무화과나무다.

필자는 2017년 12월 초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39-5 풍민 농장(박병윤 010-3365-2119)에서 무화과 묘목 60주를 사들여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공한지에 심었는데 묘목에서 3~4개의 줄기가 나와 무 화과가 열었으며 올해는 8월 말부 터 수확을 하고 있다.

이처럼 무화과는 공한지에서도 재배하기 쉽고 심은 묘목에서 올해 에 열매가 열어 수확하는 과일이므 로 공한지에 심어 '웰빙 과일'로 이 용했으면 한다.

정기연

무화과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(터키) 지방인데 우리나라 최남단인 영암군 삼호읍과 인근 지 역에서 집단으로 재배되고 있다.

구약성서에 아담과 이브가 금단 의 열매를 따 먹고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릴 때 쓰던 나뭇잎도 바로 무화과 잎이었다.

무화과는 무공해 과일이며 옛날 부터 민간 의료 약으로서 성경이나 동의보감에 아주 소중히 여겨왔다.

효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 한 알칼리 식품으로 혈압 강하, 건 위, 자양, 변비, 간장염, 암, 부인병 활력 회복 등에 좋고 설사를 멈추 고 인후통을 낫게 한다고 〈동의보 감〉과 〈본초강목〉에 기록되어 있

특히 위장과 당뇨 환자는 무화과 가 좋다는 평을 하고 있어 선호한

무화과는 꽃의 종류, 수분의 필 요 유무에 따라 원예적으로 카프리 계, 스미르나계, 보통계, 산페드로 계의 4종으로 분류되며 한국에서 는 보통계와 산페드로계를 많이 재 배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남도 영암 에서 130ha를 재배, 연간 1,500t을 생산하며 재배면적 기준 전국 대 비 72%, 생산량은 국내 총생산량의 83% 이상을 생산한다고 한다.

무화과는 면역성이 강해 병해충

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전 혀 하지 않는 유일한 무공해 식품

그러나 기후가 따뜻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재배 주산지 는 한정돼 있다.

묘목 생산은 꺾꽂이하여 대량생 산할 수 있다.

전라남도 영암군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무화과 재배단지다. 무화과 나무가 영암군 삼호읍에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영암군 삼호읍 초대 농협 조합장 고 박부길 씨의 주도 하에 재배 과수로서 기술을 정립했 다고 한다.

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박부길 씨 가 농협 초대조합장으로 취임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무 화과를 들여왔고 당시 박 조합장

은 무화과가 삼호지역의 기후와 토 양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의 보급과 육성에 팔을 걷었다.

조합원 교육을 위한 책자 〈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무화과, 영리 재 배의 실재〉를 발행한 것도 그즈음 이다.

그러나 불행하게도 박 조합장이 무화과 재배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 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무화과 재 배사업도 잠시 멈칫했으나, 이후 박영종 조합장과 1970년대. 당시 삼호농협에서 영농부장으로 근무 한 고재서(영암군 삼호읍) 씨의 노 력으로 결실을 봤다.

전라남도는 장기계획을 세워 선 진농업을 하려고 2007년부터 2009 년까지 3년간 32억 원을 투자하 여 △보성 대마, △장흥 호박, △진 도 구기자 등 3개 사업을 시범 추진 하고, '08년 사업으로는 ▲여수 돌 산 갓, ▲광양 고로쇠, ▲고흥 유자 부산물(유자 씨, 파지) 활용 상품 화, ▲화순 천혜 잠업 생산기지 특 구 조성, ▲장흥 표고버섯 균주 은 행 및 신품종 육성 브랜드화, ▲영 암 무화과 산업화육성, ▲장성 연 시 과육을 활용한 빙과류, 젤리 상

품화, ▲완도 삼지구엽초·황칠나 무 명품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전 국에서 최다 선정되어 사업당 10억 원 규모로 재배, 가공, 유통, 관광, 서비스산업 등 복합적으로 융합 지 원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했

1촌 1품의 특화된 농산물을 발굴 하고 재배 육성하여 농업의 국가경 쟁력을 높이는데 농도인 전남에서 새바람이 일고 있는 것에 흐뭇한 생각이 들게 한다.

무화과는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 는 있으나 8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하여 11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과일로서 공한지에서도 잘 자란다.

필자는 터키 여행에서 특산물인 건포도와 건무화과를 사 왔는데 무 화과가 값이 건포도보다 고가였지 만 관광객들이 선호하며 사고 있었

그것은 무화과가 무공해 무농약 농산물이기 때문이었다. 무화과의 주산지인 영암군에서는 무화과를 이용한 각종 식품도 개발한다고 하 니 앞으로 무화과는 웰빙 과일로서 향토육성사업으로 크게 발전될 것 을 기대한다.



E-mail: ihonam@naver.com

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# 폐장 해수욕장 안전사고 위험 없는 것 아니다

옷깃을 여미는 10월이지만 그래도 가을 한낮의 햇볕과 바람은 다소 덥 게 느껴지기도 한다.

나19로 인해 집콕을 하던 사람들이 으려만 최근 이미 폐장한 부산 지역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의무는 존재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위해 가족단 위로 호젓한 바닷가를 찾는 경우가 하던 청소년이 숨지고 실종되는 안 많을것이다. 여기에 더욱 우려스러 폐장 이후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. 폐 늘고 있다.

코로나 여파로 찾는 사람이 줄면서 에 폐장한 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의 이들 소형 해변에도 해수욕장을 장 해수욕장이나 마을 단위 간이해 사실상 조기 폐장을 한곳이 많았지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. 만 최근 코로나 감염세가 한풀 꺽이 사고 발생 해수욕장은 코로나19로 어 순간의 방심이 인명피해로 이어 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사고 예방 는 듯 수치가 속속 발표되면서 우리 조기 폐장하면서 전문 구조요원 등 질수 있다. 결국 수상안전요원이 철 책임을 잊지말자. 생활 주변 유명 해수욕장과 바닷가 안전요원이 모두 철수한 상태였는데 수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

조석으로는 제법 차가운 바람에 에는 주말이면 해변을 찾는 피서객 그도 그럴것이 현행 해수욕장의 이 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.

걱정을 덜어내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이처럼 따사로운 가을날씨에 코로 모두 떨쳐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 해수욕장을 찾아 뒤늦은 물놀이를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올 여름 낮 뙤약볕이 작렬하는 가을 날씨속 하고 조그만 해변이다.

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 모처럼의 나들이에 코로나 감염 자체는 폐장한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을 둘 의무는 없다고 되어있다.

사실상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해 지 않고 인력문제 지자체의 고민도 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등 아직 한 은 문제는 마을단위에 위치한 한적 장 이후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 사

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 변을 찾는 이용객 스스로 안전수칙

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 우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해 속수무 책일 수밖에 없게 된다.

폐장한 이후에는 안전을 위해 물 놀이를 해서는 안되지만 지켜보는 안전요원의 통제가 없다보니 자칫 방심에 안전수칙을 소홀히 할 우려 가 높다.

전국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 30% 이상이 해수욕장 개장 전과 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폐

김덕형/장성경찰서정보보안과

### 생활정보전화

▲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-1366 ▲응급질병상담 1399

▲ 미아·가출인신고 182 ▲ 여성 긴급전화 1366

▲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▲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-1391

▲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 ▲응급의료센터 1399

#### 긴급전화

▲기상예보 131 ▲법률구조상담 132

▲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-5666 ▲광주남성의전화 673-9001

▲광주여성의전화 363-7739

▲ 수도 고장신고 121 ▲ 전기 고장신고 123

▲가스사고신고 383-0019

### 호남신문 www.i-honam.com

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

대표전화 (062) 229-6000 광주광역시동구남문로753번길7

(061) 727-3123

회장·발행인·편집인 김 평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 선 옥

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-1 (02) 2238-0003

기사제보 (062) 222-2580 광고직통 (062) 228-2580 팩스 (062) 222-5547

등록번호 광주가 00021 (일간) / 1946년 4월 창간 / 구독료 월 10,000원 1부 500원 인 쇄 (주)남도프린테크

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.

##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

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.

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

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.

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.

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.

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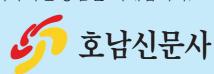
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.

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 지 않을까 합니다.

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.

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.



● 후원 계좌 농협 301-0262-7951-61 우체국 500330-01-007591 예금주 (주)에이치앤프레스